

<2012년 6월 13일 수요일말씀>

삼위일체 성자의 능력과 힘과 에너지

본 문 이사야 40장 31절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믿음의 힘)

마태복음 21장 20-22절 (기도의 힘)

마태복음 22장 37-40절 (사랑의 힘)

요한계시록 11장 3-6절 (사명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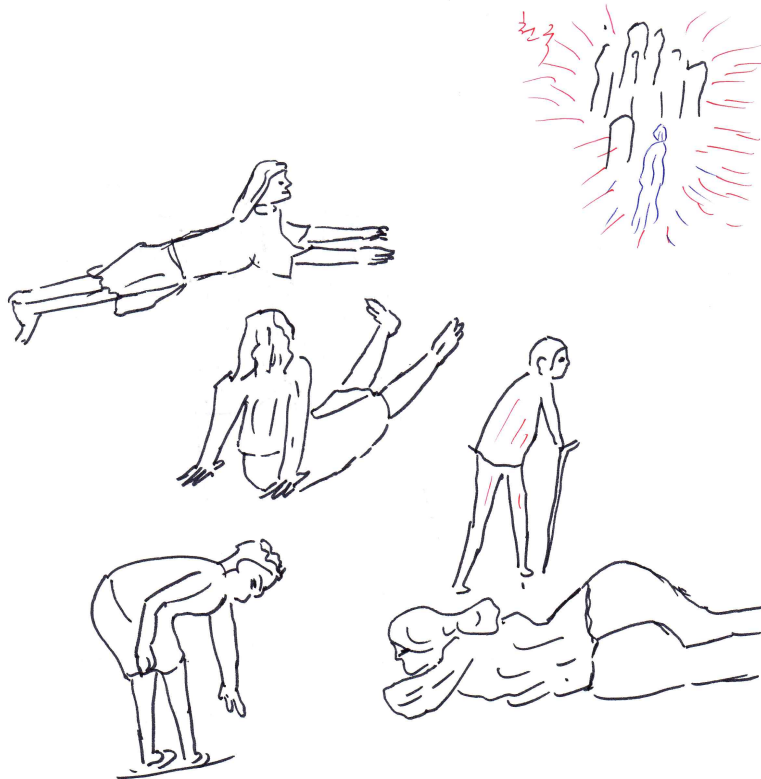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자들에게 :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는 이해시키기 위해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야 된다. 그러다가 다 이해시켰으면, 그때부터 불같이 외쳐야 된다. 처음부터 무조건 소리친다고 해서 불같은 설교가 아니다. 오늘부터 어느 부분에서 천천히 설명하듯 말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강약을 조절하는지 설교 본문에 코치해 줄 것이다.)

(천천히 설명하듯) 오늘은 이번 주 주일말씀에 이어서 삼위일체의 능력과 힘, 즉 에너지에 대해 말씀하며 약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에너지를 받아서 강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 오늘 말씀의 처음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면서 들겠습니다.) <영상1>

우리에게 신앙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행하지 못함으로 그 좋은 천국에도 못 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천국에 오라고 예정해 놓으셨어도 우리는 믿다가 말게 됩니다.



힘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고 행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힘없고 설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믿다가 만 자들은 따라오다가 말고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음으로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없어서 사탄의 꾀를 받아 타락하고 떨어졌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믿고 행했어야 하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이며 무한한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도리어 사탄이 꾀는 말을 믿으니 의의 힘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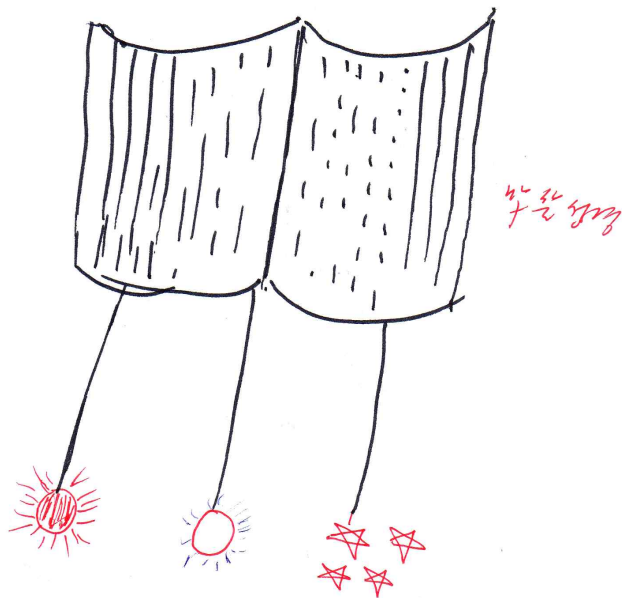
삼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켰을 때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고로 나귀 뼈로 원수를 멸했습니다(삿 15:15). 그러나 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고는 힘이 빠져나가 적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말씀은 무한한 에너지이지만, 믿고 행하다가 그 말씀을 저버리면 즉시 힘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절대 믿고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치 발전소의 전력처럼 영원한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고, 원자폭탄같이 강하고 웅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영상1 끝>

(크게) 하나님은 에너지의 근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하고 강하고 무한한 에너지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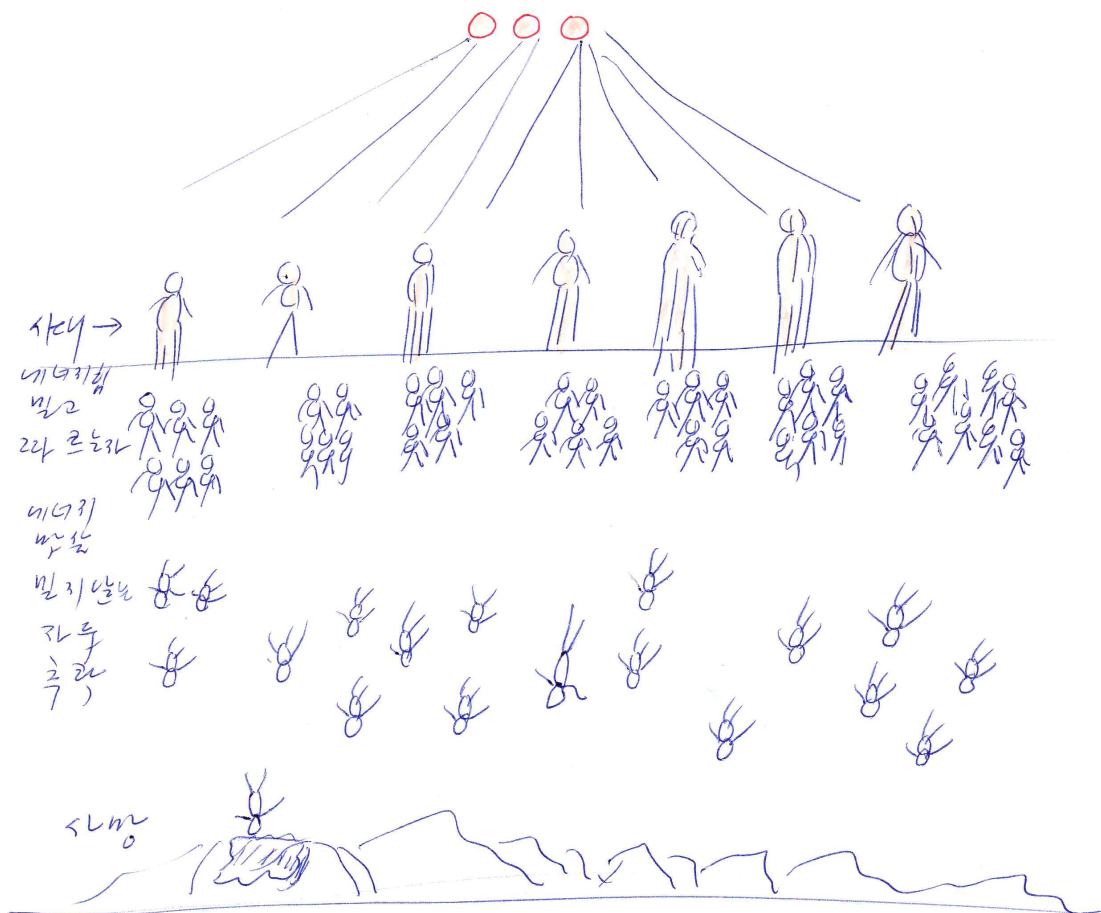


고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역사하시어 그에게 삼위일체의 신이 임하여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영상1 끝>

(작게 설명하듯) 성경 6000년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힘이 없어 역사에서 탈락되고, 사탄 마귀에게 끌려 다니면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크게) 지금까지 삼위일체는 시대마다 그 시대의 중심인물들로, 선지자들로, 메시아로 택한 자에게 ‘말씀’을 주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은 자들은 힘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신하고, 안 믿고, 깨달으려 노력하지도 않고, 말씀을 저버린 자는 힘이 없어 존재하지 못하고 믿음이 파선되고 말았습니다. / 말씀이 최고의 에너지였고,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과 성자와 그 시대에 하늘이 보낸 자를 절대 사랑하고 그와 하나 될 때, 그 힘이 함께 적용되어 시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영상2 끝>



(작게)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들의 입장으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땅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아들의 몸으로 썼습니다.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과 일체 되어 그를 통해 시대를 구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받지 못하여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만 자기를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고, 그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힘을 받아 구세주 예수님과 그 시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 지금부터 더욱 귀를 기울여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여기부터 외치기 <중요>) 이 시대 성약 때도 다시 오신 성자 주님은 또 땅의 합당한 자를 육으로 쓰시고, 그를 통해 새 시대 성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만 새 시대 힘을 받고, 구원을 이루고, 땅에서 육적 휴거를 이루면서 자기 영을 신부로 변화시켜 영적 휴거를 이룹니다.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을 듣고서는 신부로 변화되지 않고 휴거되지 않습니다. / 구약은 애벌레와 같고, 신약은 번데기와 같고, 성약은 나비로 변화된 것과 같습니다. 구약은 백조 알과 같고, 신약은 백조 새끼와 같고, 성약은 완전히 성장된 백조로 변화된 것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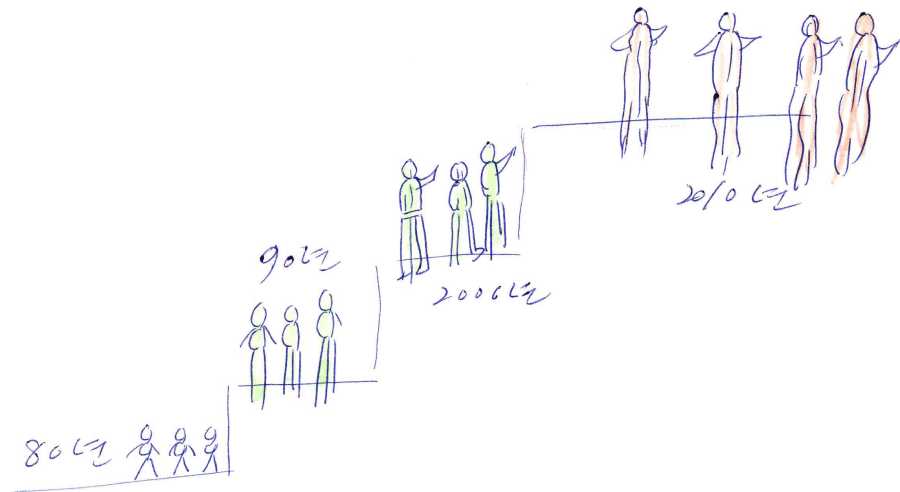
새 시대에서는 옛 시대의 말씀을 하지 않고,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어 시대의 차원을 높이며 역사를 펴 나갑니다. 그 말씀이 시대를 따라가면서 시대 구원을 받도록 힘과 능력을 주고 에너지를 줍니다. 옛 시대 말씀은 옛 시대의 뜻을 이루는 정도의 힘입니다. <영상3 끝>

섭리사가 시작되면서 새 시대 성약 말씀이 선포됐지만, 같은 성약 말씀이라도 30년 전에 전한 말씀의 힘으로는 지금 성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못 이루고 휴거 준비를 못 합니다. 30년 전에 전한 말씀은 섭리사

성장기 말씀입니다. 지금 전하는 말씀은 성약 섭리역사를 완성하고, 성자 주님이 오시면 맞게 하는 말씀입니다.

(* 계속해서 잘 들으세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같은 성약 말씀이라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2년에 전한 말씀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약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점 차원 높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때에 따라 차원 높은 말씀을 듣고 힘과 능력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옛날 1000년 전, 2000년 전 말씀을 가지고, 이 발달된 이때에 힘과 능력을 받아 신부로 변화되어 성자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합니다. <영상4 끝>



사람은 ‘말씀’ 대로 변화되고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힘과 능력’을 받은 대로 더 큰일을 하고, 행하는 것이 좌우됩니다.

그 시대 그 인물이듯이, 그 시대 그 말씀입니다.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구약시대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능력을 부리면서, 신부로 변화되어 성자가 오시면 맞고 휴거되겠습니까? 구약시대 말씀으로는 겨우 ‘종’ 입장을 유지할 뿐입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 신약시대 말씀으로는 겨우 ‘자녀급’으로밖에 못 만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하는 성자 주님의 말씀이라야 엄청난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발하는 ‘신부’를 낳게 됩니다. (아멘.)

선생이 구시대 기성과 똑같은 말씀을 가졌다면, 이 시대에 성자 본체의 분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신약 말씀에서 더 깊이 깨닫고 온전한 시대 말씀을 받고 깨달아 성자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그의 신부로 변화되고 부활하여 이 시대에 그의 육, 곧 분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그 육도 영도 종으로, 혹은 자녀로, 혹은 신부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성약 신부 역사로 와서 신부의 말씀을 듣고 육도 영도 신부로 변화되어 사는 것에 진정 감사하기 바랍니다. 사람의 육과 영은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아멘!)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선생이 신부의 조건을 세우지 않았으면, 절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팔방미인이라도, 지구 세상의 명예인, 권력가라도 신부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목나물같이 생기고 웃기게 생겼어도 선생은 신부의 조건을 세워서 성자 주님께 ‘신부 말씀’을 받았고, ‘신부 말씀’을 전해 주어 여러분들도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됐어도 보람이 없는 이유는 신부로서 가치 있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사랑’은 최고의 힘ियो, 능력ियो, 에너지입니다.

아모스 8장 11-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못 들으면 젊은 이들도 힘을 잃고 비틀거린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못 먹으면 누구든지 살이 빠지고, 마르고, 힘이 없고, 점점 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굶주린 영들은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집니다. 반면 시대 말씀을 들은 영들은 은혜가 충만하여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이 최고의 에너지이듯이, 영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양식이며 에너지입니다. <영상5 끝>

섭리사에 시대 말씀을 전해 줘도 어떤 자들은 제대로 안 듣고 일부만 믿고 삽니다. 그런 자들의 영은 마르고,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여 현재 유지만 겨우 합니다. 영에게 힘이 있어야 영이 100% 신부로 변화되어 성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휴거되어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은 빛으로 가도 150억 년 이상 걸리는 머나먼 거리인데, 영이 힘이 있어야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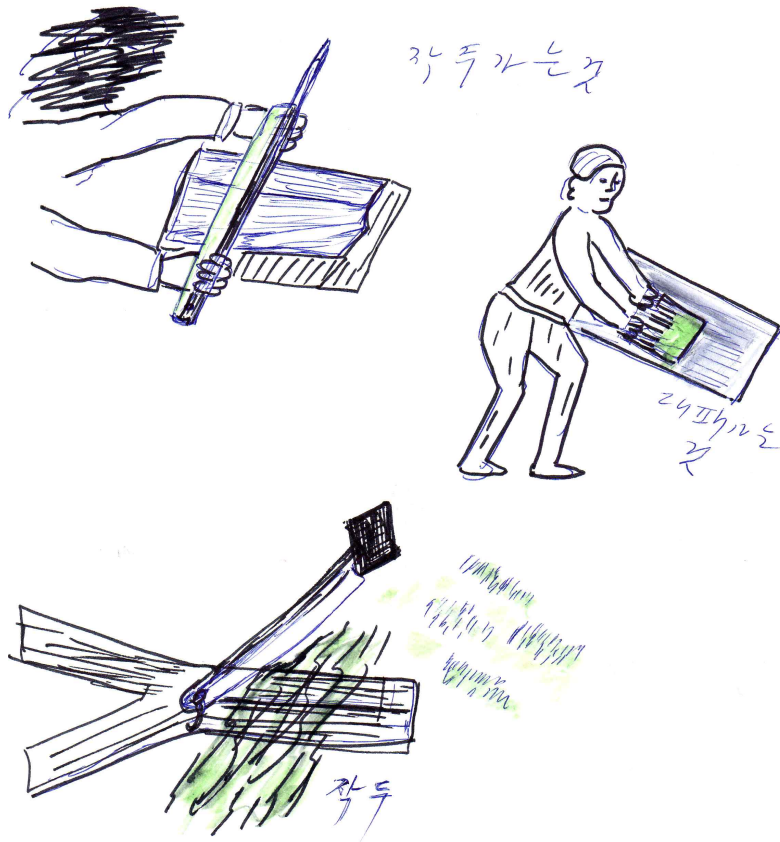
영계에서 보면, 힘없는 영들 1000명이 있어도 힘 있는 영 1명만도 못합니다. 보통 사람 1000명의 힘이 재벌 1명의 힘만도 못합니다. 힘 있는 영과 육이 하나님과 성자의 일을 하고, 선생 육이 되어 이 시대의 일을 하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전도도 못 하고, 영원히 살 자기 영을 죽입니다. 게을러서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아 자기 영을 굶겨서 죽입니다. 또 성령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니 그때 까마귀를 소독하지 못해서 못 쫓아내고, 영의 양식을 못 먹고 성령의 불을 못 받아 육과 영이 힘이 없어 비틀거립니다.

육신도 힘을 받아야 됩니다. 영의 능력은 ‘말씀’ 에서 옵니다. 성자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어야 독수리가 날개 쳐 오르듯 큰 힘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외치는 말씀 <중요>)

(* 선생이 영계에서 본 한 장면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영상6>

(이야기이니 천천히 설교) 영계에서 보니, 어떤 사람이 목수들이 재목을 반반하게 만들 때 쓰는 대패와 작두를 여러 개 갖다 놓고서 숫돌에다 날이 시퍼렇게 서도록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안 갈면 힘이 없어.” 했습니다. 칼, 대패, 작두 모두 갈수록 힘이 생긴다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칼이나 연장들은 갈아야, 사용할 때 힘이 안 들고 강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무딘 칼과 연장을 쓰면 너무 힘들고, 쓸 수도 없습니다.

(여기부터 강하게) 자기 자신은 ‘기도와 말씀’으로 시퍼렇게 갈아야 하는 연장과 같습니다. 자기를 시퍼렇게 갈고 닦고 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옵니다. 그래서 대패와 작두를 시퍼렇게 가는 계시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갈고 닦고 연단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믿고 예리하게 뇌에 넣고, 예리하게 전하고, 자기 말과 행실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교역자들과 지도자들은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갈고 닦고 연단하면서 써야 녹이 안 슬고, 무너지지 않고, 힘과 능력을 발휘하며 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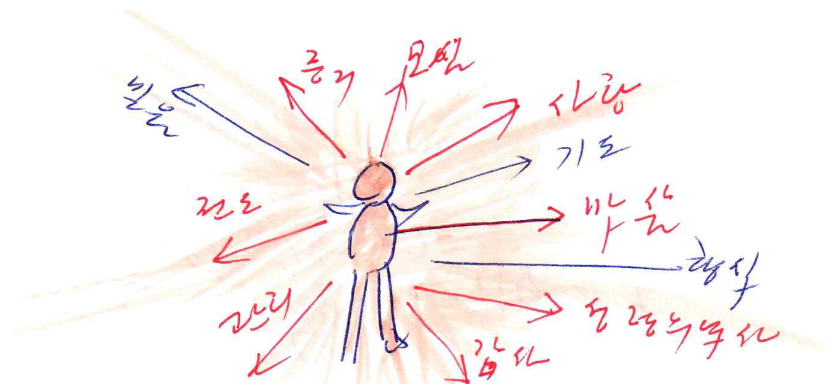
힘이 없어서 맥이 풀린 자들이 많습니다. 김빠진 사이다 인생들입니다. 바람 빠진 축구공 인생들입니다. 거친 인생 나무들을 대패로 밀고 다듬어야 매끈매끈하고 부드럽게 되고, 작두로 잘라야 꽃을 것들이 척척 꽃어집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 예리한 기도를 하고 예

리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골수에 말씀의 불이 들어가고, 성령의 불이 붙어 열심의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영상6 끝>

(*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7>

태양은 빛이 강할수록 힘과 능력의 에너지가 큼니다. 영의 세계에서 강한 빛이 강한 에너지가 되어, 그 빛으로 어둠과 사탄을 몰아내고 사탄과 싸워 이깁니다.

빛은 에너지입니다. 어떤 빛이 강한 빛입니까? 기도의 빛, 말씀의 빛, 의의 빛, 사랑의 빛, 화평의 빛, 전도의 빛, 관리의 빛, 증거의 빛, 성령의 빛, 순종의 빛, 감사의 빛, 행실의 빛, 사명의 빛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시대 말씀의 빛은 최고로 강합니다.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옛 시대 말씀의 빛은 시대와 멀어지고 늙어서 희미합니다. 또한 이 시대 사명자와 얼마나 일체 되느냐에 따라 강한 빛을 비추게 됩니다.

<영상7 끝>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빛’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성자께서 그에게 빛을 비취 주셨습니다. 모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빛을 비취 주셨습니다. 그 빛은 화평의 빛, 사랑의 빛입니다. 이 시대도 회개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빛을 발하고, 기도의 빛을 발하고, 말씀의 빛을 강하게 발해야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강하게)

이제 힘과 능력의 성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8>

<성자의 말씀>

(* 화면을 보면서 성자 주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영상9>

(잔잔하면서도 강하게) 이 시대 영적 휴거 전에 나 성자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전지전능한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힘과 능력을 쏟았으니, 너희가 듣고 깨닫고 믿어라. 행하여라. 그래야 너희 육도 영도 그 힘을 받고 변화되어 나 성자의 재림 때 나를 맞고 휴거된다. ‘시대 말씀’ 이 곧 나 성자에 관한 것과 영계와 육계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영상9 끝>



(심정으로) 나 성자가 너희의 신랑인 것과, 나의 육이며 나의 짝인 보낸 자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힘과 능력이 온다. 그리고 나 성자를 믿고 따라야 힘과 능력이 온다. 감히 내가 보낸 나의 짝을 불신하고 욕하는 자들과 함께 나의 짝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구시렁대고 있느냐. 구약 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흠 잡고 비방했어도 쫓겨나고 그 대가로 형벌을 받았다.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육이 되는 자는 나의 짝이요, 신부인데 그를 비방하면 오죽하겠느냐.

내가 보낸 자를 비방하고 헐담하는 것은 전능자를 비방하고 헐담하는 것이다. 내가 버리면 그 영이 지옥에 간다. 회개도 안 받는다. 비방하는 자는 깨끗이 회개하지 않으면 염소가 되어 곧 쪼개 낸다. 나 성자가 다 알고 말하며, 너희 선생 영도 다 듣고 안다. 비방자의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다. 즉시 깨달아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불신하여 무서운 죄를 짓고 자기를 지옥으로 가게 한다. 고로 그 힘이 다 빠져서 쓰러진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0>

(강하게) 너희가 나 성자의 힘과 능력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이 시대에 나 성자가 보내서 나의 육으로 쓰는 자, 곧 나의 짝과 일체 되어라. 그리고 선생이 나와 함께 대표로 쓰는 자와 개성대로 쓰는 자들과 일체 되어라. 그리함으로 나 성자의 힘과 능력이 온다. 성령의 역사가 온다. 사랑의 힘과 에너지로 너희 뇌와 정신에 사랑의 불이 붙는다.

(강하게) 말씀이 힘이다. 능력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깨닫는 것이 힘이다. 깨닫는 자는 한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서 무한한 힘과 능력을 받는다. / 조은 부흥강사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가 보낸 자와 온전히 일체 되었기에 그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니, 너희 가슴이 타도록 불이 오지 않느냐.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과 지도자들은 내가 보낸 자와 절대 일체 되어 그같이 하여라.

(외치는 말씀 / 작게 하면서 점점 크게) 말씀을 실천하는 만큼 너희에게 능력이 가고 나 성자의 힘이 간다. 새 생명을 전도해야 힘이 온다. 생명을 잘 관리해 줘야 힘이 온다. 깊은 기도를 해야 힘이 온다. 성령집회 때 나 성자의 힘과 능력이 간다. 시대 말씀을 힘 있게 외치고 내가 보낸 자를 증거해야 힘과 능력이 온다.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야 힘과 능력이 온다.

주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들어야 힘이 온다. 찬양해야 힘이 온다. 성지 땅 주의 성전에서 일해야 힘과 능력이 온다. 희생해야 힘과 능력이 온다. 하나 되어야 힘이 온다. 화평하고 이해해야 힘이 온다. 계시 말씀을

들어야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 책임분담을 해야 힘이 온다. 회개하면 힘이 온다. <영상10 끝>

너희가 힘을 못 받으니 나 성자가 써도 별 표가 안 난다. 힘이 없으면 신앙이 병든다. 육도 영도 그러하다. 힘을 받아야 힘차게 크고, 사탄도 행악자도 이긴다. 힘을 받아야 신부로 변화되어 성자의 재림을 온전히 맞게 된다. 힘이 없으면 성자와 사랑도 못 한다. 아이도 못 낳는다. 전도하여 생명을 못 낳는다는 말이다.

오늘 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고, 그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 행하여 2012년이 가기 전에 다 나의 신부로 온전히 변화하여라. 분명히 말했다. 나 성자의 심정을 받아야 힘과 능력이 온다. (크게 외쳐) 이 시대에 나와 너희 선생의 육이 되어 외치는 자의 심정을 받아라!! (약간 작게 심정으로) 그래야 너희 선생의 심정과 나 성자의 심정을 받는다.

(또박또박 웃으면서 전하며 매듭짓는다. 주님 대역이니까)

나 성자와 나의 육의 심정을 받아 힘과 능력으로 행하여 온전히 더욱 변화되라고 말한 삼위일체 성자다. 샬롬!